

설마~ 무슨일이

POSCO 정영수

“설마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저 공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”라고 생각한 나는 지시대로 앞으로, 뒤로를 반복하며 버튼을 눌러갔다. 그러던 중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선배의 손이 종잇장 밀리듯이 그냥 Leveller Roll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? 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댈 뿐 바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였다.

악~외마디 비명과 함께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. “야! 빨리 빼!” 날카로운 신음소리와 뒤섞여 회전하는 롤 사이로 말려들어간 손은 이미 깊이 박혀 있었다. “어서 빼라니까!” 자신의 손이 롤에 말린 선배는 아픔을 못 참아 다그치듯 외치기만 할 뿐이었고, 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Revers 버튼을 눌렀다.

밀려나오는 손은 형체가 이상할 정도로 상해 있었고 더한 고통으로 터져 나오는 비명이 나를 재촉했다

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레는 맘으로 취업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을 때다.

“영수 넌 참 좋겠네. 남들은 3년 동안 군대를 가야하는데 여기 일하면서 군 면제도 받았으니 얼마나 좋으냐?”. 그랬었다. 나와 함께 실습을 나온 5명중 혼자만이 군 특례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, 내심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.





처음 현장으로 들어간 난 어떤 일이든 빨리 배워 한사람의 몫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관심을 갖으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. 나의 첫 직장은, 주석 도금된 Coil을 Sheet로 전달하는 라인이라서 회전 롤과 전단 Knife등 위험작업이 많은 곳이다. 그렇지만,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수록 돌아가는 롤들 사이에서 작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고,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잊고 작업을 할 때가 많아 졌다.

당연히 그 위험은 나와 함께하는 일상이었고, 항상 보여 지는 배경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니 말이다.

작업하는 우리들 사이엔 Conveyor belt 위로 '휘훅' 지나가는 철판을 손으로 잡아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고, 나 역시 '휘~익' 하며 철판 한 장을 집어내는 모습이 멋있게 보여서 "나도 저렇게 해봐야지"라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철판을 집어내는 연습을 했을 정도니까....

3교대 근무 중 2교 근무를 시작하며,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대 활동실에서 미팅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로 이동을 했다.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기에 선배와 함께 움직이며, 방금 전 주임께서 안전관련 교육을 한 것을 선배에게 물어봤다.

“선배, 여기가 그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난 곳인가요?”라고 물으니, “도금라인이니 롤에 협착되는 사고가 꽤 있었고, 조업 초기라서 기술 숙련도나 안전의식이 없었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?”라고 대답을 했다.

‘캉~캉’ 날카로운 절단음이 이어지는 작업의 연속, 그러다 검사대를 보니 제품 불량이나 오는 것이 아닌가, 급히 라인을 정지하고 선배를 호출하여 점검을 해 보니, 입측 Leveller Roll에 이물질이 끼어서 놀림자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다.

선배는 입측 Roll의 안전커버를 해체한 후 여러 번 사포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해보았지만, 워낙 좁은 곳이라 손이 잘 닿질 않은 듯 이물이 제거가 되지 않았다.

“에이, 안 되겠네, 밑에 내려가서 롤을 조금씩 운전해봐.”

“예~ 그래도 되요? 위험할 텐데.. 아까.. 주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.”

“괜찮아 역방향을 돌리면 안전하니까.” 나도 그렇다 싶어, 조금씩 버튼을 눌러서 롤을 회전하며 이물을 제거했다.

“돌려~, 스톱~, 다시~, 스톱~”을 반복하다 “앞으로 약간만 돌려봐라”란 선배의 말에 “예~ 앞으로요?”라고 반문을 하자 “조금만 하면 돼”라고 하시기에 버튼을 조작해서 앞으로 살짝 돌렸다.

“설마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저 공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?”라고 생각한 나는 지시대로 앞으로, 뒤로를 반복하며 버튼을 눌러갔다. 그러던 중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선배의 손이 종잇장 밀리듯이

그냥 Leveller Roll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? 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댔 뿐 바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였다.

정신없이 빼낸 선배의 손은 망신창이가 되어 있었고, 선배는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여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통해서 손가락은 다행이 살릴 수가 있게 되었다.

사고는 한 순간이었다. 깜짝하는 찰나에 일어나 버린 것이다.

이물질제거 작업중 안전커버를 벗겨내지만 앉아서도, 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치공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더라면...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잘못된 방법으로 작업을 한 것이 후회가 됐다. “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?”하는 안이한 생각이 한 사람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린 것이다.

현재 안전도우미로 여러 가지 안전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, 그때 그 순간의 다급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.

또 다른 나와 같은 작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며, 동료들의 안전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, 누구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얼굴을 보았다면, 절대 안전사고를 가볍게 여기질 않을 것이다.

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은 나와 함께 있다. 그러나 더 이상 위험과 함께 지낼 수는 없다. 위험한 곳은 안전할 때까지 개선하고, 나 역시 항상 위험을 인지하고, 작업에 임하도록 할 테니까.

안전은 생명이다. 항상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을 예지한다면, 어떠한 위험이라도 미리 방지하고,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.

영원한 무재해, 결코 꿈같은 일이 아님을 확신하며, 모든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. 